



정의의 종

vol. 15 2009. 09.

발행인 : 김건식 | 편집인 : 정상조
151-743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Tel : 02-880-9160 | Fax : 02-878-9160
<http://law.snu.ac.kr>

2008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지난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주산홀에서 2008학년도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이 거행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81명, 석사 21명, 박사 11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김건식 원장의 졸업식사와 김정국 법대 동창회장의 축사에 이어 윤혜선, 백승준 학생이 각각 대학원과 학부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했다.

인사이드

8월 1일자로 송옥렬 기획부학장이 학생부학장직에 취임하였고, 김종보 교수가 기획부학장직을 담당하게 되었다. 송석운 학생부학장은 법학도서관장을 맡게 되었다. 또한 박정훈 법학연구소장은 임기가 만료되어 9월 1일자로 윤진수 법학연구소장이 취임하게 되었다.



송옥렬 학생부학장



김종보 기획부학장



송석운 법학도서관장



윤진수 법학연구소장

법학연구동 17동 리모델링 공사

하계방학기간동안 법학연구동(17동)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리모델링에는 우원 강익실 기금 등 총 14억 3천여만원의 발전기금이 지원되었다.

서울법대 역사관 설치 (가칭)

서울법대는 1993년부터 귀중자료실(담당교수 최종고 교수)에 전시, 수장 중이던 서울 법대 및 법학자 관련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서울법대 역사관(가칭)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한국 법학의 역사를 이끌어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은 후학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며, 법대를 방문하는 국내외 손님들에게 법대의 역사를 보여주는 안내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서울법대에 관한 귀중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영, 880-7584, nykim@snu.ac.kr)

Contents

- 2-4 서암법학관 동편제막식
- 5-7 2009학년도 Summer Program
- 8-11 법학전문대학원 신입, 겸임, 겸무 교수 인터뷰
- 12-13 교수동정, 신간소개
- 14 최고지도자과정
- 15 전문가과정
- 16 발전기금,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서암법학관 내부전경

서암법학관 동판제막식

서울법대 교수와 한국법학

서암법학관 동판제막식 강연



최종고 교수

지난 4월 14일, 그동안 서울법대를 거쳐간 명예교수들을 기리는 동판제막식이 법학도서관(서암관) 415호에서 열렸다. 415호 벽면에는 명예교수 38명(작고 19명, 생존 19명)의 동판이 전시되어 있는데, 명예교수와 유족 그리고 현직교수와 동창회원 등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고 교수가 기념강연을 했다.

인사말

오늘 새 서암(瑞巖) 법학관의 개관과 함께 대회의실에 38분의 명예교수의 동판을 박는 것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그간 해방 후 서울법대시대라고 할 만한 63년 동안 38분의 명예교수를 산출한 역사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세월이지만 한번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함께 기념하고 동판으로 영원히 조형화하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럴 때 흔히 “역사적”이란 말을 쓰는데, 정말 오늘은 서울법대 학술사 나아가 서울대학교 학술사와 한국법학사에 문자 그대로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할 만하다.

김건식 학장이 학장 취임하기 전부터 가끔 명예교수님들을 어떻게 기려드려야 할까를 상의하여 올 때마다 제가 명색이 현재의 제일 시니어 교수라고 상의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그 태도가 무척이나 진지하고 열성적이어서 감동을 받았다. 사실 지나간 편편의 기록을 찾고, 유족을 접촉하고, 어떤 사진을 사용해 동판으로 고착화 할까 등등 기술적이고 절차적인 문제가 결코 간단치 않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제막은 큰 프로젝트의 성취이라 김학장의 노고에 진심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나는 1986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15동강 의동을 짓고 학생들에게 귀감되는 법률가, 법학자의 초상화를 20개 정도 제작하여 복도와 국산(菊山)법학도서관에 걸었던 일이 있는데, 학교 예산도 없고 그저 흑백사진을 확대하여 간단한 생애서술을 하여 액자에 넣어 걸었는데, 세월과 함께 사라지고 지금은 <귀중문서실>에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모든 것이 뜻과 돈이 합쳐져서 가능한 것인데, 이렇게 멋있게 동판으로 예술작품화까지 하여 영원히 기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한번 경험을 해본 나로서는 더욱 큰일을 하였다고 진심으로 치하하고 싶다. 물론 이것으로 전부 끝나는 것은 아니고 교내 적당한 공간에는 외국의 로스쿨이나 법대에서 보듯이 품위 있는 초상화들도 하나둘 걸리기 시작해야 대학

분위기도 더욱 성숙하고 격조 있어 보일 것이다. 이 건물 아래에는 국산도서관 공간과 동창홀도 있기 때문에 잘 구상하면 이런 생각을 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학자는 학자가 이해하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외면하고 자칫 외로운 법인데, 서울법대에 이런 학문 제1, 2세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은 대단히 자랑스럽다. 사실 법학이 그리 정감 있는 학문이 아니고, 오히려 건조하고 개인주의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은 있어도 어떻게 적절히 표현할지 법학자인 우리는 스스로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의 응집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1981년에 전임강사로 시작하여 28년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교수가 갑자기 60명에 이르니 누가 학교에 나왔는지, 외국에 나갔는지 알 수도 없는데, 나에게도 상당히 오래 동안 최연소 교수로 지내면서 선배교수님들을 거의 매일 뵙고 관찰할 수 있었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아마 이런 얘기 자체가 여기 젊은 교수들에게는 전설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역사적 체험을 배경으로 지나가신 스승, 선배 학자들에 대해 자유롭게 몇 가지 증언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다.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학술사에서의 서울법대

내가 재작년 환갑에 맞추어 서울대출판부에서 낸 <한국의 법학사>(서울대출판부, 2007)에 수록된 31분의 법학자 가운데는 오늘 이곳의 38분 중 작고하신 최태영, 정광현, 고병국, 유기천, 황산덕, 이한기, 정희철, 김증한, 김기두, 서돈각, 김치선, 김도창, 배재식, 서원우 등 14분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 법학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기준으로 뽑느냐는 질문을 받게되는데, 학문적 업적과 그 의미에 따라 한다는 외에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 서

울법대 교수들이 한국법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고, 우리는 다만 보여만 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해방 후 서울법대 63년 역사 속에 몇분의 교수들이 재직했던지도 정확히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 아는 대로 해방 후 경성제국대학에서 1년간의 경성대학을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이름을 붙여 구 법관양성소로부터 내려오는 법학교, 경성법학전문학교의 전통과 통합하는 역사는 결코 순탄치 않았고, 법학교 동창과 경성제대 동창의 화합, 교수 사이에도 이른바 동대파와 성대파의 갈등의 극복 등 선배 교수 및 동창들의 노고는 감사하고 잊을 수 없다.

1950년 전쟁으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대학도 매우 혼란스러웠고, 서울법대 교수도 월북, 납북 등 예외는 못되었다. 저는 명색이 법사상사 담당 교수이면서도 아직 당시 법조계와 법학계의 좌우대립에 관한 혼란상을 제대로 연구하여 발표하지 못한 것을 크게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아무튼 <서울법대100년사>(2004)에는 1960년대 까지만도 40분의 교수진에 대하여 소개되고 있는데, 심지어 생년월년까지 불분명한 분들이 있어 서술의 분량이 들쭉날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험난한 한국현대사가 서울법대만 비껴갈 리 없었던 것이다.

유진오 박사께서 쓰신 글에 보면, 1950년에 전쟁을 처음 겪어보니 다른 직장인은 그래도 뭉쳐서 피난을 가고 대처를 하는데, 교수들은 뿔뿔히 아무 힘도 없이 간신히 부산에 구사일생 남하여 강의를 임하게 되었다 한다. 당시 <조선법제사>를 담당한 김성철교수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1951년 3월 4일 개다.

오전 중에는 뒷마루에 나가서 한나절 햇볕을 쬐고 오후엔 아직도 부기가 가지지 않은 얼굴 그대로 法大의 강의에 나갔다. 남하한 후 처



음의 강의이므로 몸이 아프다고 쉬기엔 내 마음이 허락치 않았다. 재판소 앞 ㅈ씨의 법률사무소 방 한칸을 빌려서 학생 스무나쁜 명이 그 뒷마루에까지 넘칠 지경이고, 그리고 이 우리들의 교실의 한구석엔 네댓 살 먹어 보이는 아기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렇듯 苛烈한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학문적 분위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며, 또 제군은 아무리 비통한 현실 속에 처하여서도 그 현실의 힘에 짓눌리기만 하지말고 이성적인 눈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젊은 학도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그 기열한 현실, 비통한 사태를 표현함이 좀 지나쳤는지 학생들이 이 구석저 구석에서 훌쩍거리기 시작하여 나 자신 자꾸만 목이 메었다.

(김성철, '역사 앞에서', 1993, 314쪽)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법학교수들은 1952년 12월 어느날 부산의 서울법대 학장실에서 한국법학교수회의 발기모임을 갖고, 다음해 1953년에 발족하여 초대 회장에 고병국 교수가 선출된 것이다. 이렇게 민족의 수난사 속에서 서울법대 학장실에서 한국법학계의 윤곽이 형성된 것이다. 이때부터 서울법대는 한국법학의 중심점으로 역할을 해왔다. 봉급은 적지만 서울법대 교수직은 한국에서 가장 명예로운 직장이라고 여겨져 왔다. 이런 전쟁의 와중에 이한기, 김기두, 황산덕, 신태환이 1952년 1월 8일 같은 날 모두 조교수로 발령받는다.

서울법대는 그래도 한국에서 유일하다시피 법학은 물론 필요한 교양교육을 위한 교수까지 진용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초기의 최태영, 고병국 학장을 거쳐 유기천 학장의 숨결은 법대의 곳곳에서 느끼게 된다. 전시의 법대 교과서 교문에 <Fiat Justitia, Ruat Caelum>,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고 배포유하게 라틴어로 철제 아취를 세우던 그 여유가 국난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의 기초를 놓았던 것은 하나의 쾌거이다. 그리고 하버드-예일의 최신학풍, 이른바 New Haven School of Jurisprudence를 곧바로 서울법대 법학교육에 연결시킨 것은 서울법대 법학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능력있는 제자들을 미국과 독일로 유학을 보내려고 애쓰신 것도 평가받을 공헌이다.

이렇게 형성된 서울법대의 교수진용은 상당히 폭 넓었다. 그것은 법의 지배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 그리고 실력있는 엘리트 법대출신들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주주의(democracy from above)'의 지향이었다. 이러한 서울법대 법학교육의 이념이 그후 4.19학생혁명과 5.16군사쿠테타로 이어지는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과 대중사회회화와 하향식 평등주의 등의 장애요인으로 법치주의에 의한 민주주의의 성장은 대단히 지뎠다고 굴절되었다. 이러한 혼돈 속에 사는 법학교수의 삶은 결코 평탄할 수도 보람되지만 할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대중사회에서 지식인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로는 정권에 의해 자의반타의반으로 참여를 강요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저술이 권력에 의해 자유롭게 출판되는 것마저 방해받기도 하였다. 이런 굴절 속에서도 초기의 교수들은 <사상계>지에 기고와 대담을 통해 국민의 사표 역할을 했고, 심지어 <자유부인> 논쟁 등 교수의 권위,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시기도 했다.

법학 이외의 분야이셨던 교수로는 신태환, 이상조, 인영환, 임원택, 배복석 선생님들이 계신데, 경제학, 정치학, 재정학, 체육 등이 국가지도자적 인격의 양성을 지향한 서울법대 교육을 책임지신 분들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로스쿨로서 프로페셔널 교육을 지향하면서 새삼 되새겨지는 측면이기도 하다.

서울법대 교수진

서울법대에서, 아니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첫 강의를 한 교수는 김증한 교수로 알려져 있다. 1946년 9월 18일 개교 첫날 아침 9시 강의를 하셨던 것이다.

서울법대 법학은 1953년 환도 후 1960년대에 진입할 때까지 착실한 기초를 놓았다. 그 후 헌법학은 한태연, 김철수, 권영성, 최대권으로 이어졌다.

행정법학은 김도창, 김동희, 최송화로 이어진다. 민법학은 고병국, 김기선, 정광현, 김증한, 박윤직, 황적인, 박병호, 이호정으로 이어졌다. 상법학은 최태영, 서돈각, 정희철, 양승규, 최기원, 송상현으로 이어졌다. 형법학은 유기천, 황산덕, 이수성으로 이어졌다. 국제법학은 이한기, 배재식, 백충현으로 이어졌다.

기본법이 아닌 분야는 전국에서 서울법대에 서만 가능한 선구적 개척이었다. 노동법의 김치선, 김유성이 그렇고, 법철학의 황산덕, 심현섭이 그러했고, 세법의 이태로가 그러했다. 어쩌면 이러한 기초적이기도 개척적인 것이 서울법대가 한국법학의 지평을 넓히는 데에 기여한 중요한 측면일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로스쿨이 된 지금도 학문후속세대의 양성이라는 중차대한 과제

를 남겨준다고 하겠다.

한국법학의 주춧돌

여기 38분 중 작고하신 분이 19분이고, 19분이 생존해 계신다.

작고인의 수명을 보면, 최태영(1900-2005) 105세, 고병국(1909-76) 67세, 신태환(1920-88) 81세, 황산덕(1917-89) 72세, 김도창(1922-2005) 83세, 정광현(1902-80) 78세, 유기천(1915-98) 83세, 서돈각(1920-2004) 84세, 인영환(1913-95) 82세, 임원택(1922-2006) 84세, 배복석 (1915-2007) 92세, 이한기(1917-95) 78세, 김증한(1920-88) 68세, 김기두(1920-93) 73세, 정희철(1919-2006) 87세, 김치선(1922-96) 74세, 배재식(1929-99) 70세, 서원우(1931-2005) 74세이다. 평균 79세를 사신 셈이다.

한 인간이 자서전이나 회고록 혹은 전기를 남기고 죽기는 그리 쉽지 않다. 법학서만 쓰는 법학자에게는 어쩔 더욱 그럴런지 모른다.

자서전이 나온 경우는, 최태영의 자서전 <인간 단군을 찾아서>(학고재, 2000), 황산덕의 <사화상>(1966)과 <무엇이 돌아오나>(1971), 서돈각의 <부처님과 함께>(2006) 같은 예가 있다.

전기로는 유기천에 대한 최종고의 <자유와 정의의 지성 유기천>(한울출판사, 2005), 배재식에 대한 최 종고의 <석암 배재식>(서울법대 귀증문서실, 2000)이 있다.

제자들이 추모문집으로 낸 경우는 <삶으로 가르치신 큰 스승 이한기>(오름, 1996), <영원한 스승 유기천>(지학사, 2003), <진리와 사랑으로 이끄신 참 스승 백충현>(경인문화사, 2008) 등이 있다.

38분 가운데 재단을 만들어 당신의 유지를 이어가는 경우는, 유기천기념재단, 서돈각기념재단, 김도창기념재단이 있다.

현재 생존하신 원로는 한태연 (1916생)선생님께서 금년 93세, 김기선(1918생)선생님께서 금년 91세로 노익장을 보이고 계시다. 박윤직 (1926생), 박병호, 황적인, 제 선생님도 팔순을 넘기셨다.

유기천은 미국 샌디에고에서 작고하셨지만 부인 헬렌 실빙 교수와 함께 한국의 포천 산정현 교회 묘지에 안장되었고, 정광현은 미국서 사시다 작고해서 볼티모어에 영면하고 계시다. 정희철은 캐나다에서 작고하셨다. 임원택은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참고로 재직기간을 보면, 최태영 2년, 고병국 11년, 한태연 12년, 신태환 13년, 김기선 18

년, 이상조 17년, 황산덕 14년, 김도창 5년, 정광현 17년, 유기천 26년, 서돈각 21년, 인영환 25년, 임원택 13년, 배복석 31년, 이한기 28년, 김중환 39년, 김기두 33년, 정희철 27년, 김치선 22년, 박운직 33년, 배재식 36년, 이수성 27년, 황적인 27년, 서원우 36년, 박병호 33년, 이태로 33년, 김철수 36년, 양승규 31년, 권영성 22년, 심현섭 24년, 최기원 36년, 이호정 34년, 최대권 30년, 백충현 36년, 김동희 33년, 김유성 37년, 최송화 35년, 송상현 35년이다.

대를 이어 법학자가 나온 경우는 김중환-김학동, 서돈각-서정향, 한태연-한수용, 최종길-최광준의 예를 본다.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되신 분은 고병국, 신태환, 유기천, 서돈각, 김기두, 김치선, 황적인, 김철수, 박병호 등이고, 신태환, 서돈각은 학술원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셨다.

서울법대 교수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학문과 사상이 어떤 영향을 주고있는지, 그것은 한국 법학사의 중요한 테마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을 위해 우리 법대 <귀중문서실>에는 이 어르신들의 오리지널 문서를 수집 보관하여 오고있으며, 앞으로 이들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무엇보다 이곳의 문서를 핸들링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표적인 것은 유진오문서, 정광현문서, 유기천문서, 김중환문서이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생존하신 명예교수님들은 메모 한 장, 사진 한 장도 버리지 마시고 귀중문서실에 기증해주시기 바란다.

후배학자의 과제

우리는 후배 교수로서 적어도 이 자리에서 교수회의를 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동판 속의 38분의 선배들을 늘 보면서 생활할 것이다. 이 중에는 물론 직접 배운 제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수들도 있다. 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

두 저 선배학자들을 뒤이어 교수로 있다는 사실, 연젠가 저곳에 자신의 모습도 새겨지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이 선배교수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셨다면, "이런 좋은 도서관과 연구실이 부럽다"고 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러나 연구환경이 좋다고 연구성과가 높고 반드시 정신력도 높아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있다. 어쩌면 안락하면 나태해질 수 있다. 솔직히 오늘에는 과거 못지않게 많은 연구과제와 스트레스가 있는 게 사실이다.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컴퓨터 지식이 촉박일 수도 있고 저주될 수도 있다. 아무튼 지난날 교수들이 쓰던 연구실의 책상과 집기들은 그때그때 거의 없어졌지만 정광현, 박병호교수께서 대물려 쓰신 책상과 배재식교수께서 쓰시던 옷걸이 등은 귀중문서실에 보관하고 있다. 이번에 귀중문서실이 이곳 서암관으로 일체 옮기는데 이런 학문의 세계에 왕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수성 선생님께서 때마다 후배들에게 겸손하라고 당부하시는 뜻을 알 수 있고, 최송화 선생님의 표현처럼, 후배는 선배가 놓아준 다리를 건너면서 감사의 손을 흔들어 주어야한다.

요즘 캠퍼스에 개나리, 목련, 벚꽃이 한창 아름답게 피었다. 점심을 먹고 한 바퀴 산책을 하고 나면 무슨 꽃놀이가 따로 필요 없다고 느껴진다. 만발한 꽃을 볼 때마다 저는 김중환 선생님을 회상한다. 1985년에 김기두 선생님과 함께 정년퇴임을 하시면서, "봄마다 캠퍼스에 꽃들이 만발하였는데도 최루탄 가스 때문에 감상할 수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고 하셨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캠퍼스는 한국사회의 부정을 묵과할 수 없이 투쟁과 긴장으로 점철된 현장이었다. 정치권력과 학생지도의 사이에서 남몰래 고생하고 괴로워하던 선배 교수들의 가슴앓이가 엿힌 격전장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역사를 선배 교수들의 면면을 동판에 새겨 함께 붙박고, 다음 주 20일에는 <서울법대 학생운동사>를 출간한 기념식과 함

께 서울법대에서 정의를 외치던 왕년의 학생주역들이 흠뻑땀을 하여 동판에 새겨진 선생님들의 면면 앞에 묵념을 올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교수나 학생이나 함께 우리의 역사를 만들고, 방관자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다. 결국 우리는 한 민족사의 같은 길을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 생존해계신 19분의 명예교수님들과 유족, 후손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빈다.

마침 어제 우편으로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권이혁 전 총장님의 5번째 수필집이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어르신네들이시여, 꿈을 가집시다>이고, 부제로 영어로 <Old Boys, Be Ambitious!>라고 적혀있다. 소년에게만 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꿈이 필요하다고 서문에 적으셨다. 어쩔 법도 영원히 다 이를 수 없는 꿈이 아닐까요? 그런 한에는 한국사회에 법학자의 생애는 그리 화려한 삶은 아닐지라도 계속 의미있는 교훈으로 전승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지난 1, 2월 겨울방학을 재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대학에서 <동아시아법철학>을 강의하고 왔습니다. 전쟁중이라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현지에서는 오히려 편안히 여유있게 지내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시를 100여 작품 썼는데, 마침 예루살렘에 한국문화원이 있어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 작품들을 갖고와 오늘 선배 선생님과 가족들께서 오신다기에 불거리로 아래 등창홀에 전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유기천 선생님의 사모님 Helen Silving교수가 유대인이셔서 두 분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자료도 함께 전시하였습니다. 세월과 함께 최연소 교수가 이제 최고참 시니어교수가 되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실 겸 제가 식사 후 직접 모시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2009학년도 Summer Program

국제하계강좌

이번 여름방학에는 6월 말에서 7월 초에 걸쳐 3과목의 국제하계강좌가 진행되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개원 당시부터 기획되었던 프로그램으로, 이번 제1회 강좌를 시작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더 많은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일시	시간	강의 내용
2009.6.22 (월) ~ 6.26 (금)	09:00 ~ 12:00 14:00 ~ 17:00	Stephen Choi (NYU School of Law) U.S. Securities Regulation (미국 증권거래법)
2009.6.22 (월) ~ 7. 3 (금)	09:00 ~ 12:00	Tom Ginsburg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U.S. Administrative Law (미국 행정법)
2009.6.22 (월) ~ 7.3 (금)	14:00 ~ 17:00	Bruce La Pierre (Washington Univ. School of Law)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영미법 개론)

국제하계강좌 외국인 교수인터뷰

인터뷰 공통질문

1. What is the most impressive thing of SNU?
2. What do you think of characteristics of SNU people?
3. How about your class in SNU?
4. If you have any interesting episode in SNU life, please relate your experiences to me.

Prof. Stephen Choi

1. I enjoyed the new law building and library. I found the campus beautiful (and got to see it first hand when I went jogging up a very long hill along the campus each morning at 5 AM before class). But by far the most impressive thing was the students. I thought the students did a great job in my securities regulation class--particularly given the one week intensive nature of the course. I learned a lot from my students--which I always take as a sign of a great class.

2. Everyone was very friendly and helpful. I wish I had more time this summer to spend at SNU to get to know people better.

3. I think there a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Of course the NYU law students can speak English a little better; but the SNU students can speak Korean better! I was impressed with the SNU students. And they provided a different perspective on investors and capital markets from their American counterparts.

4. Because I taught twice a day, I didn't have much of a chance to see much SNU life outside the classroom! I did get a chance to eat in the student cafeteria once--and was surprised at how good the food was. Much better compared to what I got as a college student in the U.S. many years ago.

수강소감_정홍범

Stephen Choi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정홍범 학생은 교수가 직접 집필한 Securities Reg-

ulation: Cases and Analysis를 주교재로 하였음에도 따로 충실한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명쾌하고 즐겁게 설명해주셨다고 하고, 수업 방식은 전반적인 내용을 그림을 통해 개관한 다음, 나아가 관련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더 나아가 개별 조항들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문제되는지 case study 방식으로 살펴보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실무에 나아가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배웠고, 복잡한 미국의 법률체계를 사례를 통해 깊이 파악해본 것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Prof. Tom Ginsburg

1. The Students! Very smart and dedicated.

2. SNU is a wonderful combination of serious intellectual life and relaxed personal style. I feel very comfortable here. The cam-



정홍범



최철웅



김영빈

pus is beautiful and is conducive for thinking. And the faculty are world-class.

3. Actually, I find little difference. Our students are also very smart and hard-working. I think SNU students would feel comfortable at Chicago. My class covers very hard material on administrative law. The cases are complicated and deep. The students are doing wonderful job, even though I know it must be tough.

4. One day I was walking here and some friends introduced me to a faculty member. He looked kind of familiar, and we both looked at each other until we realized we knew each other. It was Professor Ha Yong-chol, the well-known political scientist, who I had met while a graduate student at Berkeley many years before. It is a very small world!

수강소감 _ 최철웅

Tom Ginsburg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최철웅 학생은 이번 수업이 로스쿨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식 수업을 짧은 기간이지만 몸소 체험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느꼈다고 하였다. 2주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미국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비롯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 행정법이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배웠고, 특히 판례를 통해 미국 실무에서 행정법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들이 있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았던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Prof. Bruce La Pierre

1&2. The quality of the students-bright, hard working, and willing to take on the challenge of learning about American law in a question and answer discussion format-a teaching and learning style that is significantly different their familiar classroom lectures.

3. The students in my class were delightful, engaging, interesting young people who took the time to teach me a little about Korea : its history, its people, and its culture. I learned as much from them as I hope they learned from me.

4. The students took me and my wife (Kathryn Adamchick) out to dinner in Nakseongdae-a great meal (including dong dong ju) and great conversation about Korean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수강소감 _ 김영빈

Bruce La Pierre 교수의 강의를 수강했던 김영빈 학생은 처음에는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를 알아들을 수 나 있을지 자신이 없었고 예상대로 첫 수업 때부터 질문이 쏟아졌지만, 막상 수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해도 이 수업을 통해서 영미법의 개념과 '리걸 마인드'를 통해 케이스를 분석하는 힘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하며, 교수님께서 인내를 갖고 우리에게 스스로 발견해 내는 과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Prof. Stephen Choi
(NYU School of Law)
: U.S. Securities Regulation



Prof. Tom Ginsburg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 U.S. Administrative Law



법학전문대학원 하계 실무수습

이번 여름방학에는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첫번째 여름방학 실무수습이 이루어졌다. 실무수습을 진행한 기관들은 크게 공익분야 기관과 기업금융&국제법무분야 기관(로펌)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양 분야를 합쳐서 모두 16개 기관에 이르렀다. 이번 실무수습은 7월 6일에서 8월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각 2주씩에 걸쳐 진행되었고, 실무수습에 자원한 학생들은 이들 중에 한 번 혹은 두 번 참가하였으며, 학점은 별도로 부여되지 않았다.

공익인권분야의 경우 지난 5월 28일에 본교 법학연구동 서암홀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여 본교 교수와 각 기관 관계자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수습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을 해소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8월 21일에는 하계 실무수습 간담회를 가지고 각 기관에 파견되었던 학생들이 기관별로 소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특색있는 경험을 했고, 각 기관의 프로그램도 구성이나 내용, 밀도의 면에서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진로선택에 있어서 귀중한 체

험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으며, 처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니만큼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행사에는 학장단이 4명 전원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하계실무수습 간담회



Pre-Law Program

8월 17일에서 28일에 걸쳐 법학전문대학원 2009학년도 Pre-Law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중 비법학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오전과 오후 각 3시간에 걸쳐 호문혁 교수의 민사소송법 강의와 최계영 교수의 행정법 강의를 편성되었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헌법, 민법, 형법 강의를 포함한 Pre-Law 프로그램이 진행된 바 있다.

일시	시간	교과목명	담당교수
2009.8.17(월) ~ 8.28(금)	09:30~12:30 14:00~17:00	민사소송법 행정법	호문혁 최계영

Prof. Bruce La Pierre
(Washington Univ. School of Law)
: Introduction to American Law



법학전문대학원 신임, 겸임, 겸무교수 인터뷰

이번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총 13분의 신임, 겸임, 겸무 교수를 선임하였다.

2명의 신임 교수진은 이동진, John M. Leitner이며, 7명의 겸무 교수는 법조 실무계 인사들로 김병재, 노영보, 손지열, 송광수, 신영무, 양삼승, 우창록 변호사이며, 4명의 겸임 교수진은 서울대학교 다른 학과의 교수들로 안덕근, 우지숙, 이정빈, 이정재 교수이다. (이상 가나다순)

인터뷰 공통질문

1. 서울대 신임, 겸임, 겸무 교수님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우선 소감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본인의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대 학생들에게 기대 혹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4.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SNU비전은 무엇인지요?



이동진 신임교수



John M. Leitner

이동진 (신임교수)

1. 평소 존경해온 여러 선생님들 및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제게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2. 199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4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이번 학기부터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3.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으며, 그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받고 있기도 합니다. 개방적이고 비판적이면서도, 겸손하고도 철저한 자세로 자신의 자질과 능력을 갈고닦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가길 바랍니다.

4. 교육과 연구 모두에서 경험이 일천한 제가 SNU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이제 막 출범하였고, 이와 더불어 학문후속세대양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은 국내외의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과제가 아닐런지요.

John M. Leitner (Cravath, Swaine & Moore Lawyer)

1. It is a great honor for me to join the SNU faculty. I have long been very impressed by SNU because of the excellent quality of the students and also the great abilities of my colleagues. I embrace the challenge to do my best to contribute to SNU and to legal scholarship through my efforts.

2. I was born and raised in the United States in state of Minnesota, located in the north-central part of the U.S. I studied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Notre Dame, then decided to go to law school instead of pursuing a career as a doctor. During law school at Harvard, I focused on corporate law, international comparative law,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 During law school, I had the opportunity to work in Japan and to conduct legal research in both Japan and Korea. I became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and law during this time. After law school, I worked in the New York corporate law firm of Cravath for two years. My practice there included the areas of mergers and acquisitions, securities offerings, and corporate governance.

3. For those students who will be taking one of my courses, I ask that they come to class with an open mind. I urge students to do their best, and I am confident that the courses will be valuable learning experiences for the students. Finally, I hope that students will feel comfortable asking questions. In my experience studying law, many of the most interesting and most lessons begin and end with questions.

4. SNU is a place where many of Korea's finest students and future political, legal, and business leaders are educated. For me, it is very exciting to be a part of the students' education and to provide a unique perspective for them as they

develop their thoughts and opinions about the law. Also, SNU is a place where faculty produces excellent scholarship, so for me it is a welcome challenge to make my own contributions to legal academia, as my colleagues have done and continue to do. In my experience, SNU has an excellent reputation worldwide. I can see that in the future SNU will continue to build on its reputation and make ever greater contributions to Korea and the world through the work of its faculty and the achievements of its graduates.

신영무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1.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우수한 후배들에게 의미 있는 강의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2. 1967년에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이듬해 제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사법대학원을 마친 후 1970~73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3년에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었습니다. 만 2년간의 판사생활을 접고, 1975년 미국무성(Fulbright)장학금을 받아 미국 Yale School에서 증권법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증권법 실무수습 및 변호사업무 경험을 하고, 1980년 말경에 귀국하여 법무법인 세종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변호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3. 각자 자기가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정진하여 주길 바랍니다. 아울러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인생설계를 위한 깊은 고민도 함께 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4. SNU가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의 산실이 되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하여 주길 기대합니다.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모교의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배우고 느낀 것을 후배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2. 1974년 판사가 된 후 25년 동안 법원에서 일하였고, 그 후 10년간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독일 및 미국의 대학 법조계를 보고 느낄 기회가 있었습니다.

3. 법률은 이론이 아니고 경험이라 합니다. 아무쪼록 건전한 이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4.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그 능력과 재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열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막 출범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교수로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법조인의 양성과 법률문화의 창달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그 중에서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모든 로스쿨의 모범이 되고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제 나름의 지식과 경험을 살려 미력이나마 로스쿨 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2. 서울대 법과대학과 사법대학원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다음 1974년부터 2006년까지 30여년간 각급 법원의 판사와 대법관으로 일했습니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중 법원행정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재판업무와 더불어 비교적 오랜 시간 사법행정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수차례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07년 이래 김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 법학전문대학원 특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첫 학생이 된 여러분에게 법조계 나아가 온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쏠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물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여러분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국가와 사회로부터 유형 무형으로 많은 혜택을 입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웃과 국가를 섬기는 자로서 진정한 의미의 엘리트 의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4. 대한민국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을 뒤따라가는 주변국의 자리를 벗어나 세계의 중심국으로서 우뚝 서야 할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법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중심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헌신적이고 고상하면서도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기상을 아울러 지닌 훌륭한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여 세계인이 선망하는 인재의 요람으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신영무 변호사



양삼승 변호사



손지열 변호사



송광수 변호사



이정재 교수



김병재 변호사

송광수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모교의 겸임 교수가 된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그만큼 자격이 있는지 걱정도 됩니다. 미력하나마 임무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1967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고 1971년에 졸업하였으며, 같은 해에 제 1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1977년 1월에 검사로 임관하여 2005년 3월에 검찰총장으로 퇴임하기까지 29년간 검사생활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학교 학생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에 걸맞는 학문과 소양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순수한 학문도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배운 이론이 실무에서, 실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를 항상 같이 생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4. 세계화를 지향하는 오늘날 서울대학교가 세계를 향한, 세계에서 그 이름을 더 높일 수 있는 훌륭한 대학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재 (농업생명과학대학 조정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1. 법학 전문대학원으로서의 전환은 생활전반에 법률적 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산업은 헌법에 규정을 들만큼 국가의 존망에 영향이 있고, 법의 보호를 받아야하며, 법과 긴밀한 산업입니다. 대학원 강의를 통하여 미래 법조인에게 농업에 대한 균형감각을 길러주고, 결과적으로 법의 지원을 통한 농산업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 저는 1973년에 우리대학 농생대 농공학과를 졸업하고 농촌진흥공사와 농림부에서 헌법에 종사하다가 1994년에 서울대학교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부터 약 2년간 학생부처장과 2006년부터 2년간 학생처장을 역임하였고, 한국농공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새국토협의회, 한국농업정보과학회의 회장 또는 대표를 지낸바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캠퍼스기획단장 그리고 대통령실 녹색성장위원,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 등을 지내고 있습니다.

3. 우리 서울대학교는 국민의 여망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대학입니다. 이런 이유로 시인은 “민족의 앞날을 문

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하라”고 읊었습니다. 서울대 학생의 이미지를 물으면 이기적이고 나약하다는 대답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야량과 책임감이 결여된 탓이라 생각합니다. 내 이익을 생각 할 때 국가의 이익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국립 서울대학의 설립 이념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4.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였고, 전제군주국이었으며, 세계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는 불과 60년 만에 OECD에 가입한 선진국이면서, 세계 10대 수준의 경제력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한세기 동안 보수에서 진보로 또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을 민의에 따라 바꾸면서 전통적인 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전한 민주복지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과의 중심에는 언제나 서울대학교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세대는 탄탄한 경제력과 견고한 산업구조,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진 대한민국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다음 세대에 나라의 침병이 되고 주력이 될 것입니다.

김병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

1. 재능과 열정을 지닌 인재들을 대하는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그러한 인재들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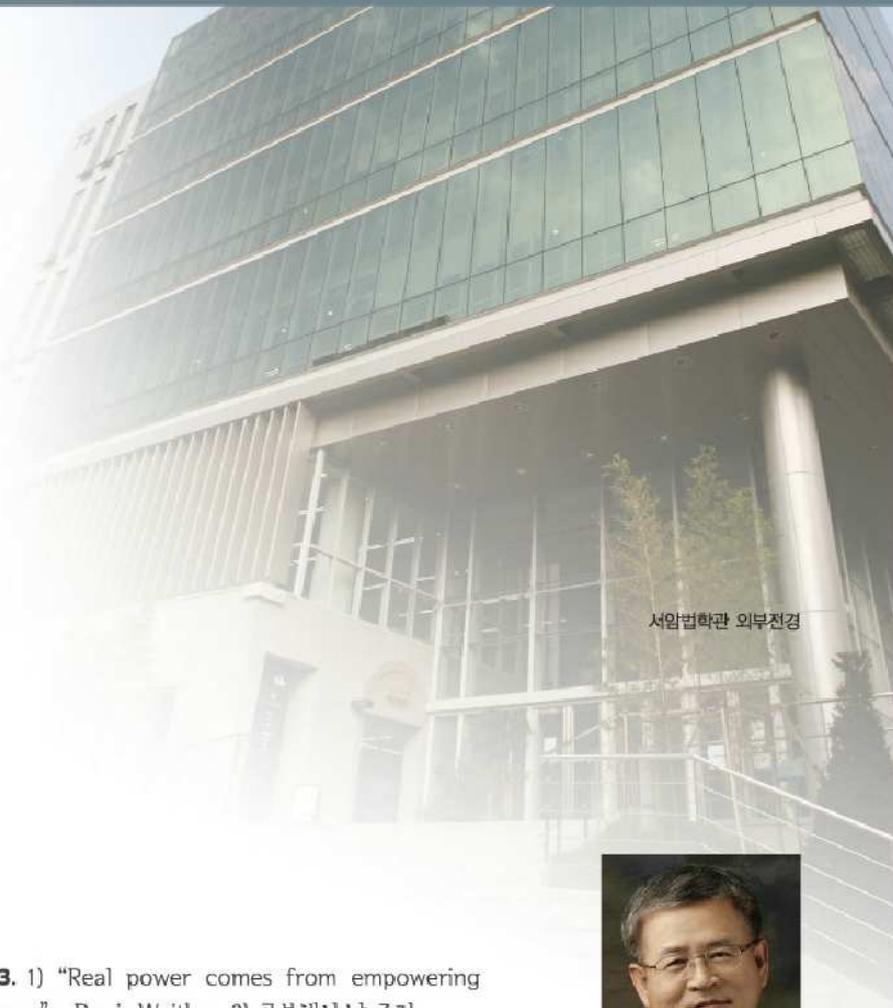
2. 서울법대 28회(70학번)이고, 서울지방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총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초빙교수,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 3가지 마음가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열정(도전정신), 둘째는 신뢰성(책임감), 셋째는 전문성(실력)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성공'과 '존경'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4. SNU의 비전은 “자기변화에 노력하고, 구성원의 변화를 도와주며,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는 것”이 서울대(SNU)가 추구해야 할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창욱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1. 제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 없는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서법법학관 외부전경

2. 서울법대 70학번으로 입학하여 74년에 졸업하였습니다. 졸업식 날 치른 제 16회 사법시험에 (운 좋게) 합격하였고, 군 법무관을 마친 후 당시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 공직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로 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의 결정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율촌의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3. 자기 성찰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참으로 큼니다.

4. 사회의 변화를 끌고 갈 수 있는 법률 이론을 정립하고,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꿈 많은 인재를 양성하는 초일류 대학

노영보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1.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공부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 저는 서울법대를 32회로 졸업하고, 사법시험 20회에 합격하여 1983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되어 2006년 2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퇴직하여 이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법대와 대학원에서 2003년부터 도산법을 강의하여 오고 있습니다.

3. 법조문과 교과서만 기계적으로 외우는 법대생이 되지 말고, 항상 모든 면에서 탐구하는 정신을 가지고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만 일할 것이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는 인재를 길러야 합니다. 학생들도 그 점을 전제로 하여 인생설계를 하고, 학습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지숙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교수)

1.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2. 학부와 대학원에서는 언론학(U. of Pennsylvania, Ph.D.)을 전공하였고 이후 로스쿨에서 법학(NYU, JD)을 전공했습니다. 법제도와 커뮤니케이션-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연구해 왔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인터넷 정책과 법', '언론미디어정책', '정책 커뮤니케이션'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3. 1) “Real power comes from empowering others.” - Denis Waitley, 2) 공부해서 남 주자.

4. 타인에 대해서는 공감(compassion)을, 자신에 대해서는 성찰(self-reflection)을 하고자 노력하는 법률가들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이 되기 바랍니다.

안덕근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1.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 모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겸무교수 기회를 가지게 되어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맡게 될 무역구제법 분야는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가지게 될 분야인데 우리 대학에서 배출한 더 많은 전문인력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시간대학에서 경제학박사와 J.D.를 취득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국제정책대학원과 스위스 소재 World Trade Institute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통상전공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제통상금융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 국제통상협상, 국제경제학 등을 강의하고 있으며 통상분쟁, FTA협상, 보조금정책, 무역구제제도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전공하는 국제통상분야의 경우에는 다학제간 접근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조인으로서 사회 문제를 다룰 때 보다 넓은 시각으로 균형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4.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 지도력있고 책임감있는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창록 변호사



노영보 변호사



우지숙 교수



안덕근 교수

교수동정



최종고 교수

최종고 교수

로스쿨에서 한국 최초로 <한국의 법률가>라는 과목을 신설하여 강의하였고, 방학중에는 6월 27일에 출국, 스위스 바젤(Basel)대학에서 개최된 <수치와 책임의 문화성>(Kulturalitat der Scham, Schuld und Verantwortung) 심포지움에서 '유교문화에서의 수치와 책임'(Scham und Verantwortung in der Konfuzianischen Kultur)이란 논문을 발표하였다. 5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강남역 근처의 이스라엘문화원에서 최종고 교수의 이스라엘 시화전이 개최된 바 있고, 9월에는 서울법대 학장과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유기천(1915-1998)교수 기념재단에서 <한국문화와 이스라엘문화> 심포지움에서 유총장과 그의 유대인 부인 헬렌 실빙(Helen Silving, 1906-1993)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호문혁 교수

호문혁 교수

6월 초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세계소송법학회에 Council의 자격으로 참가하였고, 6월 15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4월 초부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세미나, 특강 등의 활동을 하고 있고 2학기에는 정규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3월에는 한 달간 독일 뮌헨에 머물면서 DAAD의 지원을 받는 서울대, 뮌헨대, 리츠메이칸 대학의 삼각 교류의 구체적 방안에 관하여 협의하였다.



안경환 교수

안경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에서 7월 7일자로 사퇴하고 본교로 복직하였다.



권오승 교수

권오승 교수 (아시아법연구소 소장)

지난 7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왕립법과경제대학교와 공동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법적 환경”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박은정 교수

정인섭 교수

2009년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임기 1년)으로 취임하였다.

박은정 교수

박은정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함께 개최하는 제2기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에 '왜 법의 지배인가'라는 주제로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4회에 걸쳐 강연하였다. <석학과 함께 하는 인문강좌>는 인문학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된 강좌로서 그간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법학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이 강좌는 '법의 지배'이념의 철학적 인문적 토대를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시대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긴장, '정치의 사법화(司法化)' 경향, 이에 따른 사법부의 새로운 역할, 세계화 흐름이 법치주의에 미치는 영향 등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중섭 교수

정중섭 교수

지난 4월부터 법학자로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5월부터는 한국연구재단 사회과학발전기획위원회 위원장직도 맡고 있다. 사회과학발전기획위원회는 우리나라 사회과학연구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학자들의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구이다.



권오승 교수

신희택 교수

2009년 6월 21-23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국제중재에 관한 실무가들의 회의인 Asia Pacific Regional Arbitration Group Conference(APRAG)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투자협정상의 외국인투자가 보호에 관하여 panelist 로 발표하였다. 7월 3일에는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위원회 주최 “200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제9차)”에서 “상계 관세 대응에 대한 주제”에 관하여 사회자를 맡았으며, 8월 1일-2일 동경



의 동경대학에서 개최된 제 2차 Asi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회의에 참석하였다. 6월부터는 한국은행법 개정 관련 정부의 task force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조홍식 교수

7월 18일 한국환경법학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9월 10일에는 녹색성장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개최 하는 <탄소배출권국제학술대회>에서 한국입장에 관한 paper(<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도입과 입법적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9월 25에서 26일까지는 The 3rd Asian Forum for Constitutional Law 2009에 참가하여 패널로 발표할 예정이다.

양현아 교수

LSA(Law and Society Association) 활동의 일환으로 내년 2월에 홍콩에서 열리는 제1회 <동아시아법과사회> 지역학술회의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올해 3월 14일에는 한국젠더법학회 3대 회장에 취임하였다. 8월 24일에는 아시아 법과대학생 교류모임인 ALSA 행사에서 인권을 주제로 특강한 바 있다.

고학수 교수

5월 29일과 30일에 홍콩에서 열린 The 6th Asian Law Institute Conference에 참여하여 “Dealing with Corporate Self-Dealing: A Comparative and Economic Analysis Based on Korean Experience”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6월 20일과 21일에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The 5th Annual Meeting of Asian Law and Economics Association에 참여하여 “Teaching Law and Economics in Korea”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다. 7월 초에는 일본의 큐슈대학교를 방문하여 “Dealing with Corporate Self-Dealing: A New Institutional Economics Approach”라는 제목의 강의를 한 후, 박사과정 학생들의 논문발표회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8월 18일과 19일에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Institution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학술대회에서 “How Koreans Deal With Foreign Exchange Rate Risk: A Behavioral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on the KIKO Forward Contract”를 제목으로 하여 발표를 하였다.



신희택 교수



조홍식 교수



양현아 교수



고학수 교수

신간소개

석광현 교수 _ 한국의 국제사법 국제가족법을 중심으로

(카나자와대학법학연구소)

2001년 전면개정된 국제사법을 해설한 석광현 교수의 2001년 개정 국제사법 해설 중 총칙, 가족법 및 상속법에 관한 부분이 일본 카나자와대학법학연구소에서 일본어로 번역되어 2009년 3월 간행되었다.

정공식 교수 _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1) 형사편 (한국법제연구원)

정공식, 조지만, 김대흥, 田中後光 공저로 저술된 이 책은 수교자료 정리작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형사 관련 수교집 3종을 정리하고, 1632년에서 1825년 사이의 수교 108건과 대명률 강해를 수록하였다. 수교는 개별사안에 대한 국왕의 결정으로서, 경국대전과 대전회통도 이러한 수교를 종합 정리한 것이다.

김화진 교수 _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박영사)

이 책은 법률이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지배구조와 금융, 그리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을 염두에 두고 기업지배구조와 기업 금융에 관한 모든 주제를 주로 법학의 시각에서 논하고 관련 연구문헌들을 소개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 금융, 자본시장에 관한 우리 회사법, 자본시장법의 제반 장치를 경제학적, 비교법적인 시각에서 살펴 보고 영미 제도의 특성이 수입되어 온 과정과 최근의 상법개정안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국제사법



조선후기 수교자료 집성 (1) 형사편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금융

최고지도자과정

최고지도자과정 제 10기 수료식

8월 27일 화요일 저녁 6시 30분, 서암관 2층 홀에서 법대 최고지도자과정 제 10기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제 10기 과정에서는 총 45명이 수료하였으며,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고형봉	(주)고우인터네셔널 대표이사	박윤영	KT홈고객본부 본부장	이진수	국립입센터 원장
김태기	사법연수원 부원장	박정섭	에일컨설팅/회계법인 대표/전무	이창익	조선일보생활미디어(주) 대표이사 발행인
김기천	SK텔레콤 사업협력그룹장	박해미	뮤지컬배우	임익권	(주)사리엔스 회장
김명진	삼성SDI(주) 상무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임철우	(주)제부공업 부사장
김성균	대한주택공사 본부장	서영제	법무법인 산경 대표변호사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
김소현	아스quel리 대표	소윤수	소윤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진석	국회의원
김재권	두산건설(주) 부사장	손석대	비케이데이터아몬드(주) 대표이사	정진영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실	한국산업은행 법무실장	신동승	한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	조규상	골드민스자산운용(주) 대표이사
김찬경	미래상호저축은행 은행장	윤지현	(주)세진중공업 상무	조익주	푸르덴셜생명 전무
김태영	(주)빙그레 상무	이경은	(주)골드문트 이사	조정근	변호사 조정근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태호	경상남도청 도지사	이범찬	국가정보원 국장	조정숙	Standard Chartered Capital(Korea)이사
김명협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2국 부국장	이신규	대한유화 대표이사	최만석	(주)동광화학 대표이사
김홍태	(주)테크데이터 대표이사	이상락	신한은행 부행장	추미애	국회의원
노연길	(주)담역건설, (주)담역ENG 대표이사	이영근	(주)HS올딩스 대표이사	허광욱	서익총합건설(주) 대표이사
박순용	엘베스트 사장	이원태	금호고속 대표이사 사장	허중식	도진상사 대표

최고지도자과정 제 11기 과정

9월 1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2회씩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 최고지도자과정은 정규강의 뿐만 아니라, 야외 특강과 조찬특강 및 해외연수로 다채롭게 기획되어 있으며, 강의 내용 또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 기획하게 되었다.

<입학특강> 인천&오리엔테이션	김건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해외연수>	해외문화탐방
언론법의 과제와 전망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M&A와 법	박 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과 정치	김학준 동아일보 회장	성장시대의 리더쉽	송호근 서울대 사회대 교수
시장경제시스템의 발전전망	권오승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부특강> 국악가의 만남	황준연 서울대 국악과 교수
중년의 건강	권오중 서울대 의대 교수	현대인의 삶과 암	이진수 국립입센터 병원장
헌법재판과 정치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터넷, 기업범죄와 법	이상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세기 리더와 리더쉽	송 복 연세대 명예교수	미술을 통해 본 창의력의 세계	이주현 미술평론가
<합숙세미나>	세미나를 위한 우정과 친목도모	철세방안과 법	이창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통상법의 과제와 전망	신호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 음악의 세계	민은기 서울대 음대 교수
통계 속의 재미있는 세상 이야기	오종남 (전)통계청장	2009년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동학부 교수
한국사회의 법치주의	인대회 대법관	침술의 신비와 그 과학적 규명	소광섭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
<부부특강> 영화와 문화	이승재 동아일보 영화기자	골프공은 왜 공보인가?	최해천 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상속으로 풀어보는 법의 세계	남호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공을 위한 습관의 심리	곽규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우리의 역사와 한자문화	허성도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정치세계와 법	정중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진화 혁명, 지금이 마지막 기회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가치창출	장하성 고려대 경영대 학장
문화유산을 보는 눈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한국사회와 인권	인경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지배구조와 도덕적 해이	서운석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	<부부특강> 예술과 인생의 만남	조영남 가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딜레마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도주의 멋과 맛	방진식 외인문화연구소 대표
대한민국의 미래 : 안제, 지방자치, 대한민국	김문수 경기도 도지사	<졸업여행>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졸업여행

전문가과정

금융법무과정 제3기 <기업구조조정의 이론과 실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에서는 기업구조조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 경제적 이슈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금융법무과정 제3기 '기업구조조정의 이론과 실무'를 개설하게 되었다.

기업들 간의 경쟁이 국경을 초월하여 치열하게 전개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특히 최근의 경제위기와 불황국면에서 각 기업 또는 기업 집단들이 변화와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하는 실무가의 입장에서 그 실행을 위한 이론적, 실무적 무장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과정은 그 동안의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론적,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이러한 일을 맡게 될 실무담당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을 함양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입학식 및 과정, 참가자 소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법센터장
기업구조조정과 전략적 사고	박남규 서울대경영대 교수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분쟁유형	신필중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업인수계약: 실사 등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기업인수계약2: 합병계약의 사례 및 법적 문제	이형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업인수계약3: 주식인수계약의 사례 및 법적 문제	김상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주식매수청구권	이형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공개매수의 실무	윤덕진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상장폐지와 소수주주 촉출	송옥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영업양수도	강희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분할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	박태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분할의 효력과 채권자 보호	노학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LBO와 배임	송옥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구조조정 관련 최근판례의 동향	노태익 특허법원 부장판사
지주회사의 설립, 전환	노학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결합과 공정거래법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업구조조정과 도산: 워크아웃제도	이동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기업구조조정과 도산: 정리회사 M&A	홍성준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기업구조조정과 도산: 국제도산	임치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업인수합병과 금융	박수만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기업구조조정과 세법	김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별 발표 및 토론	주임교수
수료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금융법센터장

법학연구과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은 1996년 개설 이래 각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행정부 고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최근 법이론의 동향과 실용적인 법률지식을 제공해왔다.

이번 <인터넷과 법률 Ⅱ>의 공개과정은 인터넷상의 다양한 이슈들과 제반 법률문제에 당면하여,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자들과 법률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 헌법, 지적재산권법 등 관련분야의 법률전문가들인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를 모시고, 인터넷상의 법률문제에 대한 수준 높은 주제발표를 수강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본 과정은 9월 7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4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21세기 한국사회에 있어서 성공적인 법조인의 자세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여부	이종광 서울고법 판사
인터넷신문의 법적 규제와 책임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
인터넷포털의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김광준 네이버 변호사
전자문서와 민사증거법	한규현 수원지법 부장판사
전자자금이체의 법률관계	민병훈 변호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현황과 과제	정성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법정의 소개	오민석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사심의관
전자거래가 현행 조세체계에 미치는 문제점과 그 해결	엄운룡 변호사
정보화시대와 법조인의 대응자세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디지털복제금지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거래의 국제재판관할과 지향된 활동	석광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공간에서의 전통적 범죄와 형사법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메인이름 사용과 법적 문제 - 판례를 중심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이버공간에서의 새로운 범죄와 형사법	김태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온라인 오픈마켓업자의 상표권 침해책임	박준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외상매출채권의 법적 규율	박현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포털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법적 규제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점	정진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와 법적 문제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집중관리	이해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과 증권거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온라인서비스상의 상표권의 침해	김기영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터넷상의 저작권 예외	윤중수 대전지법 논산지원장
인터넷포털의 검색서비스의 법적 문제	이병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보통계약상의 법률문제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와 디지털수사	최성진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검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와 에스크로우제도	남효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보호의 법적 문제	경 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전기금 출연 현황

(2009.05.01 ~ 2009.08.31 / 단위 : 만원)

날짜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날짜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날짜	이름	금액	기금용도	날짜	이름	금액	기금용도
5/1	백은재	500	사설금	6/1	법대88회 동문일동	5,000	사설금	7/7	김주석	300	위 임	8/21	고창현	300	사설금
5/4	박 준	2,000	사설금	6/1	김우근	50	사설금	7/8	박성철	100	위 임	8/21	최종석	500	사설금
5/6	이동근	200	사설금	6/1	전병수	50	사설금	7/9	이상정	200	사설금	8/25	법무법인윤촌	1,000	사설금
5/7	구본인	100	도 서	6/1	권영철	50	사설금	7/9	백창준	500	사설금	8/25	송상현	30,000	사설금
5/7	김동찬	100	사설금	6/2	윤석정	50	사설금	7/10	최영세	50	위 임	8/25	성인인	100	사설금
5/7	김재섭	50	사설금	6/2	나대진	30	사설금	7/13	정유혁	1	도 서	8/25	김수영	500	사설금
5/11	법대36회 동문일동	7,790	사설금	6/2	김영태	50	사설금	7/14	안수현	100	사설금	8/26	전일호	1	위 임
5/11	법대오회 동문일동	4,000	사설금	6/3	윤영스	100	사설금	7/15	김용덕	100	사설금	8/26	최지석	1	학 술
5/11	법대오회 동문일동	1,000	사설금	6/3	김희철	500	사설금	7/15	조홍식	1,000	사설금	8/26	박수관	2,000	사설금
5/11	정순성	500	사설금	6/3	박덕열	50	사설금	7/15	유희	500	장 회	8/26	김성현	500	사설금
5/11	정순성	500	위 임	6/3	김진수	100	사설금	7/16	법대30회 동문일동	3,040	사설금	8/26	안종민	100	사설금
5/12	장윤현	1	도 서	6/3	이도현	100	사설금	7/17	정태익	10	사설금	8/26	이정음	300	사설금
5/12	박익환	300	사설금	6/4	법대88회 동문일동	3,230	사설금	7/20	임종호	100	사설금	8/26	김수영	100	사설금
5/12	임완서	100	사설금	6/4	구자춘	100	위 임	7/21	윤성태	100	사설금	8/27	김정국	330	위 임
5/12	이영애	100	사설금	6/5	권은민	100	사설금	7/23	김재호	1,000	사설금	8/27	정윤국	300	사설금
5/13	심재갑	100	사설금	6/8	김난도	100	사설금	7/23	김영태	1,000	사설금	8/27	윤진수	200	사설금
5/13	김형진	1,000	사설금	6/9	김대서	100	사설금	7/23	정광우	100	사설금	8/28	송상엽	100	사설금
5/13	이 준	100	사설금	6/10	LGסה하부행주	500	사설금	7/24	오유석	100	위 임	8/28	신홍장	300	사설금
5/14	정상경	30	사설금	6/10	송두원	30	사설금	7/24	박근우	200	사설금	8/28	이충범	2,000	사설금
5/14	황경진	50	사설금	6/10	최모혁	100	사설금	7/27	임지영	30	사설금	8/28	손지열	1,000	사설금
5/14	한기경	500	사설금	6/11	정오혁	1	도 서	7/28	최종현	300	사설금	8/28	최태현	100	사설금
5/15	김 훈	100	사설금	6/12	법대88회 동문일동	130	사설금	7/28	전일호	1	위 임	8/28	김민권	50	사설금
5/15	이정준	500	사설금	6/12	박연철	100	사설금	7/28	최지석	1	학 술	8/28	최정환	100	사설금
5/18	권순인	50	사설금	6/12	유정규	100	사설금	7/29	차재세	1	학 술	8/30	방석호	100	사설금
5/20	정상조	1,000	사설금	6/16	홍석조	1,000	사설금	7/30	송운수	500	사설금	8/30	조대연	200	사설금
5/22	곽승희	100	사설금	6/16	법대88회 동문일동	200	사설금	7/31	이상중	500	사설금	8/31	김도영	100	사설금
5/25	김동현	100	사설금	6/17	이정희	100	사설금	7/31	김정국	330	위 임	8/31	이시윤	100	사설금
5/25	송윤걸	500	사설금	6/17	서정걸	100	사설금	8/4	송광수	300	사설금	8/31	차재세	1	학 술
5/26	안경남	10	사설금	6/19	윤서리	1,000	사설금	8/4	노희준	500	사설금	8/31	이지환	500	사설금
5/26	최지석	1	학 술	6/23	이승훈	30	위 임	8/6	이선우	200	사설금	8/31	김상일	500	사설금
5/26	법대오회 동문일동	5,000	사설금	6/25	김성은	100	사설금	8/8	안영물	100	사설금	8/31	전도영	100	사설금
5/27	서경서	100	사설금	6/25	신혁구	50	사설금	8/10	김준표	100	사설금				
5/28	최세모	50	사설금	6/26	안경봉	10	사설금	8/10	김상훈	100	사설금				
5/28	서원대	10	사설금	6/26	전일호	1	위 임	8/11	윤호일	200	사설금				
5/28	최현탁	30	사설금	6/26	최지석	1	학 술	8/11	정유혁	1	도 서				
5/29	김병준	200	사설금	6/26	윤재석	100	사설금	8/12	명호근	100	사설금				
5/29	이재민	300	사설금	6/26	김정국	340	위 임	8/12	오승남	300	사설금				
5/29	양동관	50	사설금	6/28	이해광	300	사설금	8/12	남기범	100	위 임				
5/30	조대연	300	사설금	6/29	박정열	100	사설금	8/17	조인호	100	사설금				
6/1	차재세	1	학 술	6/30	차재세	1	학 술	8/19	박홍우	50	사설금				
6/1	신희택	2,000	사설금	7/1	연영희	10	위 임	8/21	황병기	100	위 임				

17등 로비에 발전기금 고액출연자 명단 게시

17등 1~2층 리모델링 공사가 9월중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이다. 새로 단장한 1층 로비에는 대학본부건물 입구와 마찬가지로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을 게시할 예정이다.

1980년대부터 발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을 합산하여 천만원 이상을 출연한 분을 약 150여명의 명단을 개인별로 동판에 새겨 이미지월에 붙일 예정이다.

일단 9월 15일을 기준으로 명단을 작성하지만 이름을 새긴 동판이 탈착가능한 방식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수시로 출연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정숙, 880-9160, interlaw@snu.ac.kr)

남입력 기간 합계	97,685
(2009.05.01~08.31)	
연간 합계	231,299
(2009.01.01~08.31)	

법과대학 및 센터별 일정 (2009.06.15~)

기관명	일시	일정
법과대학	6/15	코스를 침단지도모임 / 평가회
	6/22 ~ 7/3	Summer Program
	7/6	Summer Internship
	8/17 ~ 8/28	Pre-law Program
	8/21	2009 법학전문대학원 하계실무수습 간담회
	8/26	후기 법과대학 학위수여식
경쟁법센터	3/7 ~ 6/18	공개강좌 (공정거래법의 선진화)
	8/31	보건산업 발전 포럼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9/25	제3차 정책세미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의 쟁점과 과제)
	10/20	제4차 정책세미나 (카르텔 규제의 쟁점과 실무)
공익산업법센터	6/18	제15회 방송법 집담회 (네트워크 액세스 규제와 콘텐츠 액세스간 관계)
	6/26	제16회 방송법 집담회 (EU에서의 방송규제 완화, forum shopping 그리고 바닥으로의 경쟁 / 소극적 콘텐츠 규제)
	7/17	제17회 방송법 집담회 (유료연합의 미디어 소유규제와 적극적 콘텐츠 규제)
	8/22	제18회 방송법 집담회 (유료연합의 광고 및 회원국 보조에 관한 규제)
	9/16	공익산업법센터 초청강연 (강사: 나경원(국회의원))
10/24 ~ 10/25	제26회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 (전파관리제도의 개선방향)	
공익인권법센터	9/8 ~ 11/24	제3회 국제인권법 공개강좌
	9/2-12/2	제3회 NGO와 법의사회 공개강좌
금융법센터	6/26	금융법센터 포럼
기술법센터	7/20	제7회 영엄비밀의 사법적 보호
	8/18	온라인 광고 - 사업모델과 시장구조, 그리고 문제점
법외지배센터	6/30	Law & Economics Forum (입찰참가제로 인한 피해액 산정 - 98~00년 군납유급합권권 민사소송권)
국제통상·거래법센터	9/11-11/27	금융강좌